

|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4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4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 홀수 )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①	2	35	⑤	2	35	④	2
2	④	3	19	③	2	36	③	3	36	⑤	3
3	⑤	2	20	④	2	37	⑤	2	37	②	2
4	④	2	21	②	3	38	①	2	38	③	2
5	①	2	22	②	2	39	③	2	39	④	2
6	④	2	23	③	2	40	②	2	40	③	2
7	②	2	24	②	2	41	③	2	41	③	3
8	③	3	25	①	3	42	③	2	42	①	2
9	③	2	26	③	2	43	③	2	43	⑤	2
10	②	2	27	④	3	44	③	2	44	⑤	2
11	⑤	2	28	④	2	45	②	3	45	②	2
12	②	2	29	⑤	2						
13	④	3	30	⑤	2						
14	①	2	31	①	2						
15	③	2	32	③	2						
16	①	3	33	⑤	2						
17	④	2	34	④	3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4차 예비평가 해설

## • 공통과목 •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인적 독서는 정보를 얻거나 교양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는 독서일 뿐, 교양의 확장을 사회 변화에의 관심으로 연결하는 독서는 아니다.

[오답풀이] ② 기능적 문해력은 사람들의 일상, 직업, 지역 활동 등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므로, 기능적 문해력을 갖출 때 현대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다. ③ 비판적 문해력을 주장한 프레리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필자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④ 비판적 문해력은 텍스트의 표면적 이해에만 그치지 않고 필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텍스트의 목적이나 관점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게 해 준다. ⑤ 비판적 문해력에서의 프락시스는 노숙인을 위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자의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2.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에 소개된 독서법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적 독서)에 필요한 비판적 문해력은 필자가 은폐할 수도 있는 실제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므로, ㉠은 텍스트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심을 품고 그 너머에 다가서는 독서이다. 이와 달리 ㉡(군자의 독서)는 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독서이므로, 텍스트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심을 품는 독서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텍스트의 목적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읽는 독서는 ㉡이 아니라 ㉠이다. ㉡은 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독서이다. ② ㉠을 위해 텍스트의 중심 내용 파악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문의 서술로부터, ㉠ 역시 텍스트의 중심 내용 파악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독서임을 알 수 있다. ③ ㉠과 마찬가지로 ㉡ 역시 세상과 만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뜻을 가지고 행하는 독서이다. ⑤ ㉠과 달리 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은 만민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번성하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짐으로써 완성되므로, 독자의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그 취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문해력에서의 실천적 행동인 프락시스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으며 작은 실천적 행동으로도 충분하다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라면 거창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고 조언해 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회 문제를 다루는 서적보다 자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읽으라는 조언은 지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 ② 평소 관심을 가지는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라는 조언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독서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조언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독서를 통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조언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4 ~ 9] 사회 통합

####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26쪽

4. [출제의도]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를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적용된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판례들 사이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도입 문단에는 채권자 대위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② (나)의 도입 문단에는 채권자 대위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적용될 때 논란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③ (가)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금전 채권과 특정 채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의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이 권리의 행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유물 분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대위 채권은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되지만 그 효과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오답풀이] ② 대위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는 피대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위권이 행사되기 전이라면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부양 청구권처럼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 ④ 타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허용된다. ⑤ 일부 공유자의 채무를 다른 공유자가 변제하면 공유물의 분할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는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빈칸의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채권자 대위에 대한 판례는 금전 채권인 경우와 특정 채권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과의 관련성,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풀이] ㉠ 발생 원인과 목적 측면에서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관련 없으면 언제나 채무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특정 채권을 가진 경우이다. 이처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특정 채권인 경우와 달리,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발생 원인 및 목적 측면에서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관련 없더라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라는 조건만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 금전적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즉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음' 경우이면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책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에는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갖고 있든'이 들어갈 수 없다. 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이 들어갈 수 없다.

7.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떤 공유자이든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공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로써, 자신과 공유 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공유자의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대개 공유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므로 재판을 거쳐 행사된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현물 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④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피대위 채권일 경우는 공유자의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재산 관계에도 간섭이 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행사될지 여부는 재판에 의해,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은행은 X에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X에 대해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 한편 X는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남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손해 배상 청구권도 갖고 있다. X의 채권자인 은행이 X의 권리인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풀이] 1심 법원은 은행의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지문에 제시된 2020년 소송에 따르면 그렇게 판결한 경우라도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의 대상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 때문에 대위권 행사 불가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은 모두 채무자 X가 가진 권리이다. 따라서 두 권리 간의 관련성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 간의 관련성이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② Y가 가격 배상을 하여 X와의 공유 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은, Y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

고 X에게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공유물이 분할되면서 X의 책임 재산이 늘어나므로 은행은 채권을 보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④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재판에서 현물 분할로 그 분할 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⑤ Y가 X에게 아파트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격 배상으로서 공유물 분할 방법에 해당하며, 가격 배상을 하게 되면 공유 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2심 법원이 해당 방법을 공유물이 분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했을 리는 없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소지(素地)'는 문맥상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위를 생기게 하는 원인.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라는 의미이며, ㉡의 '소지(所持)'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0 ~ 13] 인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송시열처럼 '이일분수'를 해석할 때 '이일'에 주목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만물의 이치인 '이'가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음"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일'은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는 이치는 하나로서 동일한 것이라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서인 세력을 이끌었던 송시열을 두고 과거에는 기존 질서 유지에 힘쓰려 했다고, 즉 개혁에 반대하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다. ③ 노비종모종량법은 각 백성의 집에 역 부담을 줄여 자영농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④ 남인 세력은 노비종모종량법이 시행 과정에서 폐단을 낳는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어 이 법에 반대하였다. ⑤ 납포제하에서는 군포를 1필, 2필, 3필로 차등 징수하였다. 그러한 차등 징수를 없애기 위해 납포제의 시행이 제안된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특정 인물이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송시열은 '이일분수'에 따라 인간은 노비, 양인, 양반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현실에서 차등적인 역할이 주어진다고 본다. 즉 송시열은 역할의 차등을 인정하면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송시열은 율곡 이이를 계승하여 주자학적 관점에서의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하였다. ② 송시열은 주자학의 정명론을 적극 취하였다. 따라서 그는 현실에서 추진할 개혁안들도 정명론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송시열이 옹호한 주자학의 정명론을 뒷받침하는 '이일분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차이는 물질적 요소인 '기'의 영향을 받은 기질지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물론 기질지성의 차이는 '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송시열

이 해석한 '이일분수'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만물의 이치인 '이'가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다.

**12.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내용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송 논쟁에서 왕가와 민가의 상례를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는 송시열의 태도는, 왕가에서 조대비가 그 아들인 효종과 며느리인 효종비의 상에서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민간에서의 상례와 다르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예송 논쟁에서의 쟁점은 왕가의 상례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것이지, 현실에서의 실제 상례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왕가의 상례와 민간의 상례는 현실에서 구분되지 않고 있음'은 ㉠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③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논쟁인 예송 논쟁은 예에 관한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은 논쟁의 한 입장을 드러낸 것일 뿐, 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례 이외에는 신분과 귀천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상례에서는 신분과 귀천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일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왕가와 민가의 상례를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는 것과 상반되는 의미이다. ⑤ ㉠은 조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한 송시열의 입장일 뿐이지, 그 기간에 따라 신분제에 대한 왕가의 입장이 달라짐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갑'은 노주간의 소송이 분분해서 신분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등 노비종모종량법의 폐단을 고하고 있다. 이는 허적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장이다. '을'은 양반호포법을 갑자기 시행하면 폐단이 뒤따르지만, 먼저 군적 정리를 한 후에 이어서 양반들에게 포를 거두어들이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송시열과 같은 입장인면서, 양반호포법을 시행하기에는 재정이 넉넉해서 명분이 없다고 보는 의견에 대응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을'이 양반호포법을 갑작스럽게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것은, 먼저 '재정이 부족하니 양반도 포를 내어 재정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시의 대부분의 양반들은 양인들만의 군역 부담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군역 부담의 폐단이 정리될 것이라는 명분을 양반에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남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반이 양인과 똑같이 군역을 부담하는 것은 명분이나 신분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갑'은 노비종모종량법에 대해 신분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폐단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와 같다.'라는 명분론에 입각한 행동이다. ② 신분의 기강을 강조하는 '갑'은 신분 간의 역할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시열과 달리 그는 '이일분수'를 해석할 때에도 신분 간의 차이를 강조하여 해석할 것이다. ③ '을'은 군포를 납부하는 이들의 과중한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족들에게 포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양반과 양인의 역할이 다름에도 양반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남인은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반의 군역 부담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을'이 양반호포법을 시행하기 전에 군적을 정리하자고 고한 것은 군포의 양을 줄어든다 하여 양반들에게 군역 부담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군역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인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 17]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쪽**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리는 게임으로 제로섬 게임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거나 서로 협력하는 등의 상황이어도 참가자들의 이익과 손실의 총합이 0이면 이를 제로섬 게임이라 부른다.

**[오답풀이]** ② 1:1 전략 게임은 비교적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다. 이는 인공 지능의 개발 과정에서 활용되곤 한다. ③ 지문에 따르면 1:1 전략 게임은 두 참가자가 서로 번갈아 두며 겨루는 게임이다. 한 참가자가 연속하여 두 수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최대 최소 알고리즘으로 몇 수 앞을 예측하면서 현재의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수를 예측할수록 그만큼 트리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커져서 일일이 탐색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⑤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평가 함수를 적용하면서 이루어진다. 평가 함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로가 유리한 경로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알파 베타 가지치기 역시 평가 함수를 통해 계산한 점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평가 함수 없이 최대 최소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 [출제의도] 지문의 <그림>을 고려하여 특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은 컴퓨터와 상대방이 1:1 전략 게임을 하는 상황이다. 손실을 기준으로 최대 손실을 작게 하는 '최대 최소'를 따르거나, 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소 극대화'를 따르거나, 둘 모두 한 참가자가 승리 때 다른 참가자가 패인, <그림>의 1:1 전략 게임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문단에 따르면 1:1 전략 게임이 제로섬 게임인 이유는 한 측이 승리 때 다른 측이 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에 따라 '최대 최소'를 따르든, '최소 극대화'를 따르든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낳는 이유는, 한 측의 이익이 다른 측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두 경우 모두 승패가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그림>은 1:1 전략 게임의 상황으로 두 참가자 모두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가정하고 탐색한다. 또한 그러한 가정에 탐색한다고 하여 ㉠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1:1 전략 게임을 할 때 '최대 최소'를 따르든 '최소 극대화'를 따르든 결과는 동일하다. 두 참가자가 동일한 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④ '최소 극대화' 역시 협력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 극대화'와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모두 참가자들이 적대적 관계라고 가정한다. ⑤ 컴퓨터가 최소 이익을 극대화할 때 상대방의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컴

퓨터가 최소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면 상대방은 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가 된다. '최대 최소'나 '최소 극대화'는 모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취하는 방법들이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틱택토 게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상대방이 ㉔를 둔 상태에서 컴퓨터가 마련한 트리 구조이므로, 지문에서의 <그림>과 유사한 상황이다. 컴퓨터는 이어서 ㉕, ㉖, ㉗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㉘, ㉙, ㉚, ㉛, ㉜, ㉝는 상대방의 선택지이고, 그 하위의 선택지는 다시 컴퓨터의 선택지이다. ㉞나 ㉟처럼 동일한 기호 3개가 나란히 두어졌을 때에는 게임이 종료되므로, 그 하위에 선택지가 없는 상태이다. 트리에서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 함수는 컴퓨터가 이길 때 +1점, 비길 때 0점, 질 때 -1점을 부여한다.

		㉔(0)			
	㉕(0)	㉖(-1)	㉗(-1)		
㉘(0)	㉙(+1)	㉚(-1)	㉛(+1)	㉜(-1)	㉝(0)
(0)	(+1)		(+1)		(0)

**[정답풀이]**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㉕, ㉖, ㉗ 중에서 점수가 높은 ㉕를 택할 것이고, 이어 상대방은 컴퓨터의 점수가 낮은 ㉘를 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위에서 비기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결과가 ㉘로 이어져서 컴퓨터가 이길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㉚와 ㉜는 모두 동그라미 3개가 세로로 늘어서 있어서 상대방이 이긴, 게임 종료 상태이다. 상대방이 이긴 상황이므로 점수는 -1로 동일하다. 이는 0점인 ㉕보다 낮은 점수이다. ㉛와 ㉛에 부여되는 점수는 하위의 선택지가 지닌 점수들 중에서 낮은 값이다. 그 하위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선택지들이므로, 상대방은 컴퓨터의 점수 중 낮은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㉜와 ㉜의 하위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하위의 선택지가 지닌 점수를 그대로 옮겨 올 것이다. 그 하위 선택지는 X가 가로로 3개 있는 곳이 있으므로 컴퓨터가 이긴 상태이다. 즉 점수는 +1점이다. ㉙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활용하려 할 때, ㉚나 ㉜는 상대방의 선택지이다. 즉 컴퓨터가 높은 점수를 지닌 쪽의 하위를 제외할 수 있다. ㉛의 점수를 확인하면 -1점이므로, 0점인 ㉛ 하위의 선택지를 트리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17.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예상되다'는 '어떤 일이 직접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되다.'의 의미이므로, '드러나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8 ~ 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까치전」**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둘기는 까치가 '봉황 임금의 제삿날'임에도 낙성연을 열었다며 '그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다. (참고로, 비둘기가 까치를 책망하는 진짜 이유는 봉황 임금의 제삿날에 낙성연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다. 비둘기는

까치가 자신을 낙성연에 초대하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까치의 집을 빼앗고 싶기도 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㉓ 낙성연 참석자들은 비둘기와 까치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까치의 편을 들고 있지 않다. (참고로, '모든 객이 그 말이 옳다'하며 까치의 편을 드는 모습은 관가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섬동지의 발화 속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㉕ 섬동지가 군수 앞에서 비둘기의 편을 든 것은 맞지만, 이는 비둘기 측에서 섬동지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섬동지가 낙성연을 연 까치에게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19.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지의 의사가 너른 바다 같'다는 비유적 표현은 도량이 넓다는 칭찬이 아니라, 일의 옳고 그름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온 섬동지의 행태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지닌 서술이다.

**[오답풀이]** ㉒ 까치가 '노오로하여 이급인지로라'라는 옛글을 인용한 것은, 할미새와 섬동지 같은 다른 집 노인들을 모욕하는 비둘기를 꾸짖고자 함이다. 비둘기가 스스로 연장자라고 잘난 체하거나, 까치가 그것에 대해 책망한 것은 아니다. ㉔ 추측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㉖은 일의 상대방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바람대로 잘될 것이라는 장담을 담고 있는 말이다. ㉕ ㉖은 실제 두꺼비의 양태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통해 나이 많은 인물인 두꺼비 섬동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섬동지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으로 볼 때, ㉗이 궁지에 몰린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까치는, 그의 꾸짖음을 듣고 화가 난 비둘기가 발로 차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A]에서 섬동지는 '까치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비둘기에게 달려들어' 걸어차려다가 '발을 헛디뎠 떨어져 죽'었다고 하였다. 섬동지는 이렇게 까치가 죽게 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둘기가 까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㉓ 섬동지는 비둘기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비둘기가 이는 나 때문에 죽음이라 하고 정범으로 나섰나이다'라는 진술은, 까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비둘기가 의로운 성품 때문에 범인임을 자처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비둘기가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둘기의 처자와 동생이 섬동지에게 재판과 관련된 부탁을 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여 가해자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려는 부당한 청탁일 뿐, 자신들의 억울함을 수령에게 하소연하기 위함이 아니다. (참고로, 비둘기는 까치에게 시비를 걸다 까치와 다투고 결국 까치를 죽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비둘기나 그 가족의 상황이 억울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풀이]** ㉑ 비둘기는 새집을 지은 까치가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까치의 집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품고 낙성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통해 비둘기와 까치 간의 갈등에 재산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비둘기가 까치의 재산을 질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㉕ <보기>는 '두민'이 향촌 사회 주민의 대표자로서 수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름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문에서 섬동지가 '두민으로서' 재판에 소환되는 것이나 군수가 그의 의견을 물으면서 '나이 많고 점잖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등도 이와 관련된 서술이라 이해할 수 있다.

**[22 ~ 25] 현대소설**

**→ 작가 연계: 이문구, 「관촌수필」(수능완성 219쪽)**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용모는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형이 떨어져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면 내야 할 벌금 이상의 돈을 뇌물로 써서라도 재판을 받는 일만큼은 피해 보고자 하였다. '부조리 제거니 서정쇄신이니 하고 아무리 떠들어 돈만 쓰면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거였다. 설령 벌금보다 돈이 더 든다더라도 법정 출두만은 면해야 되겠던 것이다. 그것은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 구속을 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용모는 자신이 아니라 한동네 사는 사람의 아들이 썩을 잡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아들이 썩을 잡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㉓ 신문사의 지국장인 처삼촌은 용모에게 괜히 억울함을 항변할 생각 말고 순순히 죄를 인정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왕 넘어간 것, 별 수 없으니 굽게 참구 판사 앞에서 허튼소리나 말어.', '벌금이나 물구 말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㉔ 용모는 '좁은 바닥에 살자면 누구하고 혐의지거나 유감을 품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죄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고려하여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㉖은 서술자 '나'가 용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대목이다. 이때 '이야기를 해 보마고'나 '결과를 알 것이라더니'는 처삼촌이 이전에 용모에게 했던 이야기에 해당하고, '참으라고 타이르던 것이다'는 조금 전 다방에서 만난 용모에게 한 이야기에 해당한다. '나'는 이를 요약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나'가 처삼촌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이를 요약적으로 옮긴 것은 아니므로, '나'가 1인칭 서술자로서 자신이 겪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요약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㉑ ㉑은 용모가 폭행을 당한 상황과 관련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이때 ㉑은 마치 전지적 서술자의 서술인 것처럼 인물의 삶에 대해 파악한 상태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㉑의 내용은 용모가 서술자에게 설명한 것일 수 있지만, 지문 내에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㉔ ㉖은 서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전까지 용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던 '나'가, 1인칭 서술자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눈앞의 용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24. [출제의도] 인물들 간의 대화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침 먹구 가 봤더라니께 아홉 시나 됐겠지유.’는 용모가 남의 말을 전하는 투를 구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평을 잡은 사람이 실제로는 용모가 아니라 ‘한동네 사람’의 아들인 상황에서, 최 순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그 아이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다. 용모가 실제로 평을 잡은 것이 아니므로, 용모가 타인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용모는 최 순경이 자신을 밀려꾸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고서, ‘땀으로 잡았다구 했소? 무슨 땀이요?’라는 최 순경의 질문에 대답 대신 ‘그런디 그게 말유…….’라는 말로 말머리를 돌리고 있다. 이는 최 순경의 판단이 실제 벌어진 일과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에이 선생님두 참.’에서 용모가 최 순경을 높여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당신 봐주려고 헐 때 들어요. 그게 쉬워요.’라는 최 순경의 말은, 용모에게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라고 요구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용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자, 최 순경은 용모에게 폭행을 가한다. 폭력을 통해 그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 순경의 말에서, 인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잔존해 있는 농촌의 모습을 엿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③, ④ 용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최 순경은 ‘구두 뒤축’으로 용모에게 폭행을 가한다. 이는 법의 집행자가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쓰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돈만 쓰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말은 곧 뇌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용모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6 ~ 30] 고전시가—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봉선화가」(수능완성 224쪽)

→ 작가 연계 : 신경준, 「어상」(수능특강 312쪽)

→ 작자 미상, 「봄이 간다컸늘~」

26.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국화가 은일하다는 통념(국화가 주무숙으로 인해 ‘은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국화를 키우며 사랑하고 시나 그림으로 예찬하며 국화의 계보를 책으로 정리하기까지 하는 것(‘국보’를 만든 것)을 보면 국화는 은일한 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국화가 아니라 어상이야말로 은일한 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봉선화와 관련하여 체험하고 느낀 바를 나타내면서 봉선화 꽃이 진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러한 감정을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감이라 하기는 어렵다. ④ (가)는 봉선화 꽃이 저 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나)는 봄이 가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는 대상의 부재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웃는 듯 쩡그리는 듯’ 하직 인사를 하는 모습은 꿈에 나타난 ‘꽃 귀신’(‘녹의홍상 한 여자’)이 화자에게 보인 모습이지, 화자가 ‘꽃 귀신’에게 보인 모습이 아니다. 또한 화자가 꿈을 꾸 것은 봉선화가 진 것을 보기 전의 일이므로, 봉선화가 진 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그린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농옥이 ‘선계’로 떠나면서 ‘규중에 남은 인연’을 봉선화 꽃가지에 담았다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백화보’에 실린 봉선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② 봉선화가 꽃을 피우자 화자는 봉선화가 비록 향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꼬일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 말하면서, 향기가 없다는 점이 봉선화의 ‘정숙한 그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봉선화의 향기 없음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봉선화에 규중 여인이 ‘벗할’ 만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나비와 벌이 꼬이지 않게 하려는 봉선화의 태도에서,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규중 여인의 정숙함을 떠올린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봉선화를 안채의 ‘섬돌 앞’에 심어 가까이 접하면서 느끼게 된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는 ‘피꼬리’를 의인화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봄’도 의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봄’에 대해서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파사국 임금의 홍산호를 갈아 낸 듯/깊은 궁궐 절구에 홍도마뱀 뺨아 놓은 듯’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백반과 봉선화 꽃잎을 함께 갈아 낸 후에 그것을 손톱 위에 얹은 모양을 홍산호와 홍도마뱀을 갈아 놓은 모양에 비유한 것, 손가락 끝에 동여매 놓은 종이 위로 봉선화 반죽의 붉은 물이 스며들어 비치는 모양을 미인의 흰 뺨에 홍조가 어리는 모습에 비유한 것, 손가락 끝을 단단히 묶은 모양을 왕모(참고로, 여기서 ‘왕모’는 전설상의 신녀인 서왕모를 의미함)에게 부치려고 비단에 옥으로 글씨를 박은 편지를 소중하게 봉해 놓은 모양에 비유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낙화 쌓인 곳’, ‘유막’, ‘피꼬리’ 등은 계절과 관련된 소재로서 이 작품의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소재들은 작중에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음을 환기한다.

29.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글쓴이는, 절개를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꽃들이 자신을 예찬하는 글로 인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이는 그러한 꽃들이 은일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은 향기가 없다고 해서 봉선화를 비웃지 말라는 뜻으로, 봉선화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선화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담고 있다. ② ㉡은 화자가 ‘녹

의홍상 한 여자’가 나타나는 꿈에서 깬 후, 봉선화가 질 때가 되었기에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하다고 여겨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봉선화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봉선화가 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은 국화가 은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화가 모란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글쓴이가 은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화의 명성이 높은 것을 대견스럽게 여긴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글쓴이는 절개를 가진 꽃을 사랑한 도잠이 어상을 보아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의 절개를 예찬하였을 텐데, 그래서 어상이 국화처럼 널리 알려졌을 텐데, 왜 어상이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묻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음을 통해 글쓴이는 도잠이 어상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를 도잠이 어상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을 담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어상’에 대해, 은일한 꽃이라는 점에서 ‘국화’보다 낫다고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⑤의 설명과 달리, 글쓴이는 ‘어상’의 절개가 ‘국화’에 못지않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어상’이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서리가 내릴수록 그 빛깔이 더욱 선명하니, 아마 (서리를 이겨 내는 국화의 높은 절개를 사랑했던) 도잠이 이 꽃을 보았다면 그 사랑이 국화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짧은 봄을 자랑’한다는 표현이나 ‘이십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도리화’ 또한 머지않아 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암암히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는 것에서 ‘봉선화’의 낙화에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을, ‘도리화’에게 ‘이십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뒤라서 슬퍼할꼬’라고 하는 것에서 ‘도리화’가 지는 것은 슬프게 여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 34] 현대시

→ 연계 지문 : 한용운, 「님의 침묵」(수능특강 79쪽)

→ 황동규, 「즐거운 편지」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한 영탄적 표현을 통해 ‘님’에 대한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내 사랑도 ~ 믿는다.’, ‘다만 ~ 것뿐이다.’, ‘그동안에 ~ 믿는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도 ‘이별은 ~ 터 집니다’, ‘우리는 ~ 믿습니다.’, ‘제 곡조를 ~ 휩싸고 돕니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나)는 ‘그대’를 향한 사랑의 자세를 담담하게 슬회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제를 활용하는 것일 뿐, 내용상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가)의 ‘님’은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고 하기 어렵다. (나)의 ‘그대’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작품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후 남겨진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것이지,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B]는 '황금의 ~ 날아갔습니다.'와 '날카로운 ~ 사라졌습니다.'라는 유사한 내용과 문장 구조를 가진 두 행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즉 [B]는 사랑의 맹세가 날아갔다는 문장과 사랑의 추억이 사라졌다는 문장을 병치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으로 인한 화자의 허망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④ [D]에서 '사랑'이 '사람의 일'이라고 한 것은 '사랑' 또한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사람의 일'이기에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막상 '이별'을 겪자 '이별'이 '뜻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별이 화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E]는 '슬픔의 힘'이라는 표현을 통해 '슬픔'을 '힘'과 결부하고, 그 '힘'을 '희망의 정수박이'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별을 사랑의 끝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사랑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두 시의 핵심 시구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은 '슬픔의 힘'을 '새 희망'으로 옮긴 화자가, 그로 인한 걱정이 치솟는 상태에서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환기한다. 따라서 ㉠은 '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화자의 내적 충만함을 부각하는 시구라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가 자신의 깊은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은 '그대'를 향한 화자의 지속적인 마음을 부각하는 시구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은 '그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임을 환기하고 있을 뿐, 화자와 대상이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시구가 아니다. ③ ㉣은 '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님'과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은 '그대'를 향한 화자의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임을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화자가 대상에 대해 품은 마음의 한결같음을 부각할 뿐, 마음의 양면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구이다. ④ ㉨는 '제 곡조를 못 이'긴다고 한 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환기하는 시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는 이어지는 시구와 결부하여 고려할 때, 화자의 마음을 감추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시구라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에서 사랑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사랑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대신 지속적인 기다림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감싸 주기를 소망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는 자신의 사랑이 성취될 것이라 믿는 화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사랑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하는 시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를 짝사랑하고 있는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자신의 깊고 간절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이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는 말은, 시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대'의 관심을 받지 못함에도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짝사랑의 기다림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화자는 기다림을 사랑의 다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⑤ '그동안'은 화자의 '그대'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와 관련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눈'(겨울), '꽃'(봄), '낙엽'(가을)에 이어 다시 '눈'(겨울)이 이어질 것이라고 함으로써, 계절의 순환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기다림이 해를 거듭하며 이어질 것임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0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주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연설자는 푸드 마일리지라는 용어의 출처로 <푸드 마일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다. ② 연설자는 연설의 전반에서 경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격식을 갖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③ 연설자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이 먹은 음식들의 원산지를 아나요?', '그렇지 않나요?'라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연설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④ 연설자는 로컬 푸드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포스터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의 설명에 따르면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 수송량에 이동 거리를 곱해 계산하므로, 푸드 마일리지값은 운송 수단의 종류와는 관련이 없다. 연설자는 푸드 마일리지가 큰 먹거리일수록 운송 거리가 길다고 설명할 뿐 운송 수단의 종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37. [출제의도] 연설의 특정 부분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에서 '쌓일수록 해로운 마일리지', 즉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는 먹거리가 이동해 온 거리

가 길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로컬 푸드의 비중이 높은 식생활을 실천할 것을 권하는 ㉤가 적절하다.

**[38 ~ 42]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21쪽

**38. [출제의도] 기사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구가 노점을 단속하기로 예정된 일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노점상들이 '구청으로부터 노점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③ '현재는 243개의 노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운영되고 있는 노점의 개수와 노점이 열리는 요일을 제시하고 있다. ④ '노점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노점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노점 운영을 허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9. [출제의도] 기사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3문단에서는 '노점이 열리면 통행이 많이 불편해지므로 노점 단속이 필요하다'는 노점 단속을 원하는 측의 의견과 '인근 농촌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노점을 단속할 필요는 없다'는 노점 단속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대조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기사와 협상의 내용을 적절하게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인근 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청 측의 발언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기 문화 행사 개최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오답풀이]** ① 구청 측은 '도로의 폭이 2.7m보다 훨씬 더 넓은 인근 □□ 공원 앞으로 운영 장소를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구청 측은 '진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장소에서의 노점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해당 장소에서 노점 영업을 허가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노점상 측은 '노점의 존속을 원하는 주민 6,300명의 서명을 모아 왔다'고 서명 운동에 동참한 주민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⑤ 노점상 측은 구청 측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제시한 □□ 공원 앞은 주택가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협상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노점상 측은 ㉠에서 '다만 □□ 공원 앞 도로에는 전기나 수도를 끌어올 설비가 부족'하다고 상대가 제시한 장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후속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후속 기사에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4쪽

43.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둘째 문단에 프루스트 현상이 2001년 미국의 연구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이 실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글을 점검하고 초고를 수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마지막 문단 중 후각이 진화상 가장 먼저 발달한 원초적인 감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은 글의 흐름에서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였다. 또한 질문의 방식으로 끝을 맺은 마지막 문단에는 어느 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냄새(“그런 냄새”)를 맡게 된다면 그 순간을 즐겨 보는 것도(“잠시 추억을 되새기며 행복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③이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에 의하면 후각 단서에 의해 떠오르는 기억의 정확성은 시각 단서나 청각 단서로 떠올린 기억의 정확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4문단에 제시된 대로 후각에 의해 떠오르는 기억이 비자발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도가 낮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ㄱ에 제시된 실험은 냄새로 인해 환기된 기억이 ‘단순히 사실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나 즐거움, 그리움과 같은 감정 역시 느끼게 한다’라는 4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험이다. ③ 3문단에는 후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뇌의 후각 중추까지 전달되는 경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경로는 ㄴ에 따르면 다른 감각 경로와 뚜렷이 구분된다. 다른 감각의 정보는 시상을 거쳐야만 감각 중추에 도달한다. 그러나 후각의 정보는 변연계를 지나 직접 후각 중추에 도달할 수 있다. ④ ㄴ에 따르면 변연계에 있는 기관 중 해마는 기억의 형성과 저장에 관여하고, 편도체는 감정의 처리를 담당한다. 이 내용을 활용하여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연계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ㅎ’의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8쪽

자음군 단순화는 중성에 겹받침이 오고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음이 아닐 때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괜찮고[괜찬코]’에서는 ‘ㅎ’이 ‘ㄱ’과 합쳐져 [크]으로 소리 나고 있다. 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풀이] ① ‘들끓다[들끌타]’에서는 ‘ㅎ’이 ‘ㄷ’과 합쳐져 [트]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② ‘끓음음[끄느름]’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ㅎ’이 탈락한다는 ‘ㅎ’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③ ‘배앓이[배아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ㅎ’이 탈락한다는 ‘ㅎ’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⑤ ‘맞똥는[만똥른]’에서는 겹받침의 ‘ㅎ’이 자음 ‘ㄴ’ 앞에서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36. [출제의도] ‘ㅎ’ 불규칙 활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0쪽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 어간 끝의 ‘ㅎ’이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ㅎ’과 ‘으’ 모두 떨어진다. 이에 따라 ㉡와 ㉣의 진술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 어간 끝의 ‘ㅎ’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ㅎ’과 어간 끝모음, 어미의 첫 모음은 모두 떨어지고 ‘애/에’, ‘애/예’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의 진술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 형용사 ‘좋다’는 예외적으로 규칙 활용을 한다. ㉣ ‘파랑-+-아서’가 ‘파래서’로 활용하듯,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 어간 끝의 ‘ㅎ’이 어미 ‘-아서’와 결합하면 ‘-아서’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37. [출제의도] 다의어가 서로 대립적 의미 관계를 갖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4쪽

위 문장의 ‘주책’과 아래 문장의 ‘주책’ 모두 ‘일정한 뜻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의미한다. 이는 대립적 관계를 갖는 다의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위 문장의 ‘값없다’는 ‘물건 따위가 너무 흔하여 가치가 별로 없다.’의 의미이고, 아래 문장의 ‘값없다’는 ‘물건이 값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가치가 높다.’의 의미이다. ③ 위 문장의 ‘앞’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고, 아래 문장의 ‘앞’은 ‘장차 올 시간.’을 의미한다. ④ 위 문장의 ‘방금’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을 의미하고, 아래 문장의 ‘방금’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를 의미한다. ⑤ 위 문장의 ‘애누리’는 ‘값을 깎는 일.’을 의미하고, 아래 문장의 ‘애누리’는 ‘물건 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을 의미한다.

38. [출제의도]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5쪽

㉢의 ‘그런’은 앞에서 ‘요 며칠 몸이 아팠어.’라는 ‘주희’의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의 ‘그랬는데’는 앞에서 ‘한번 가 보고 싶더라.’라는 ‘주희’의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의 ‘이거’는 ‘책’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고, ㉣의 ‘그’는 뒤에서 언급되는 ‘저번에 학교 앞에서 나한테 말해 준’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의 ‘저기’는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장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7쪽

‘고졸’은 체언 ‘꽃(꽃)’에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체언의 중성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서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되었다.

[오답풀이] ② ‘至極(지극)홀씨’의 현대어 풀이는 ‘지극하므로’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연결 어미 ‘-르씨’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보빅(보배)’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고 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디(그대)’에 관형격 조사 ‘스’이 붙은 것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56쪽

40. [출제의도] 종이 신문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기자의 전자 우편 주소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수용자로 하여금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기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반영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드 2’에서는 (가)에 나타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전체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과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원그래프로 각각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접속 부사 ‘그리고’를 사용하여 앞 내용과 뒤 내용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다.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 두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드 뉴스의 보완 방향은 학교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 (나)에 카드를 적절히 추가하는 것이다. (나)에서는 청소년의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과의존 위험군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40쪽

(나)에서는 수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캠페인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게시 글의 작성자인 도서부 학생이 수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45. [출제의도] 제작 계획을 캠페인 포스터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54쪽

(가)의 캠페인 포스터 제작 계획을 반영하여 (나)에서는 도서 오염 및 훼손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낙서가 되어 있는 페이지와 찢어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의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오염되거나 훼손되기 전과 후의 도서 이미지를 나란히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